

사부대중이 함께 만드는 '사찰'

44주년 맞은 삼광사 신도회

35만의 신도를 자랑하는 부산 삼광사신도회가 창립 44주년을 맞이했다. 1969년 10월 15일 한 가정집에서 150여명으로 출발한 신도회는 부산 광명사에서 더부살이를 하며 삼광사 창건불사를 주도 했다. 이 작은 원력의 씨앗이 현재는 35만 신도수를 자랑하는 대형 사찰로 성장했다. 삼광사의 눈부신 도약과 발전의 중심에는 항상 삼광사신도회(회장 이현승)가 함께 있었다.

삼광사가 한국을 대표하는 도량으로 발돋움한 데에는 삼광사신도회의 힘이 컸다. 사찰이 있고 신도회가 발족한 것이 아니라, 신도회가 발족하고 사찰이 창건 된 것처럼 사찰운영의 주체가 사부대중이 항상 함께 참여하고 조율해 왔다. 바로 '참여와 소통'에 있다.

삼광사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신도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왔다. 그 결과, 신도회 집행부의 14개 전문적 분과가 사찰종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며 종무행정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재가불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는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 우선, 지역중심의 신행단체가 만들어졌다. 부산 16개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17개 지회가 조직되어 지역밀착형 신행공동체를 갖추게 되었다. 무엇보다 바쁜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중에 또 하나는 '주경야작'을 주창하는 종단의 뜻을 받아들여 '24시간 수행도량'으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산문을 개방해 왔



참여와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부산 삼광사신도회가 11월 1일 창립 44주년 법회를 가졌다.

35만 신도 결집해 단체 구성

참여와 소통 문화 자리 잡아

다는 점이다. 1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삼광사 지관전은 대규모 법회 뿐 아니라, 세계적 24시간 기도객을 맞이하는 24시간 수행시설을 갖추고 있다. 참여와 소통의 사부대중 공동체, 24시간 개방된 법당 외에도 이웃들의 눈과 마음을 밝히는 배움의 길을 열어 준 한글학교, 생필품 지원사업, 목욕봉사 등을 통해 한결같이 지역의 빛과 벗이 되어 왔다.

제11대 주지 무원 스님이 취임하면서 삼광사를 '함께 찾아가는 힐링사찰'로 선포하고, '지혜롭게 비움·행복하게 채움·아름답게 동행·다름이 아름다운 세상'을

모토로 삼광사 신도뿐 아니라 지역을 넘어 모든 사람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새로운 걸음을 내딛고 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삼광사가 이토록 발전하기까지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역대 주지 스님과 신도회장 및 간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여러 방면으로 신도들의 불자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 살피며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불교를 삼광사에서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월 1일 오전 10시 경내 지관전에서 개최된 삼광사 신도회 창립 44주년 법회에는 장도정 총무원장 스님, 이문덕 종의회의장 스님과 임혜경 부산광역시 교육감,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을 비롯해 여러 기관장과 1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동명대 '세계 선(禪)센터' 10월 31일 개원

내외국인 위한 수행 프로그램 제공

내국인은 물론,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의 선수행학교, 힐링, 가족행복나누기 등 한류문화의 글로벌 체험과 외국대문문화교류 등의 중심 기관 '세계 선(禪)센터'가 10월 31일 부산 동명대(총장 설동근)에 개원했다.

동명대는 10월 31일 교내 동명관 4층에 170명이 동시 이용 가능한 수련장, 다도실, 탈의실, 샤워실, 선원장실 등 총800㎡(240평) 규모의 세계선(禪)센터 개원식을 가졌다.

동명대는 4년의 준비 끝에 세계선(禪)센터를 설립 교내 부속기관화함으로써, 전교생 인성교육과 한국문화 가치 재발견의 장으로 활용하며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체험, 외국대학과 문화교류 등



동명대는 10월 31일 교내 동명관 4층에서 세계선(禪)센터 개원식을 가졌다.

의 중심기관으로 활동 할 계획이다.

초대 선원장 수진스님(해인정사 주지)은 "세계선센터는 타 대학 학생과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원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장 수불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 전 교육원장 무비스님, 전 포교원장 혜홍스님과 동명대 설동근 총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함께 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황해사 창건 43주년 기념법회

전통음식문화축제도 개최

전태종 포항 황해사(주지 이문덕)가 11월 5일 창건 43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포항불교사암연합회 스님들을 비롯해 천태종 종단 스님과 황해사 신도 천여명이 참석했다. 법회와 함께 황해사는 사찰 경내에서 전통 음식문화축제를 열었다.

황해사가 창립 43주년을 맞아 마련한 이번 전통 음식문화 축제는 사찰음식 문화 선양과 지역민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황해사 43주년 기념법회 장면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한편, 천태종 포항 황해사는 지난 1970년 창립한 후 1998년 현재의 5천여평 사찰부지에 사찰을 건립 지역사회 복지 활동과 포교에 힘을 쏟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생명나눔, 11월 19일

100원 희망불씨 콘서트

'제8회 100원 희망 불씨 콘서트'가 11월 19일 오후2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가 개최하는 이번 콘서트는 1부에는 100원으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도, 2부는 유진박, 국악팀 하랑, 스포라노 박지인 등이 출연 희망의 노래로 진행될 예정이다. 후원금 전액은 난치병 환우 치료비로 사용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연등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공양물

등을 밝힘으로써 번뇌와 무지에 싸인 어두운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추고자 했던 것이 등공양을 있게 한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불교가 도입된 이후 등공양을 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 <삼국사기>에는 정월 보름에 왕이 황룡사로 행차하여 간등(看燈)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 이것이 곧 연등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정월 보름과 이월 보름에 국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연등을 밝히고 잔치를 벌일 정도로 국가적인 행사로 열렸는데, 의종 때에는 백선연이 사월초파일에 연등회를 시행하고, 고종 때에는 최이가 연등회를 열어 밤새도록 즐겼으니 이것이 오늘

날 사월초파일 연등행사의 전신인 것이다. 조선시대에 한성장안에서 열린 관등놀이는 한성팔경의 하나인 정도로 큰 구경거리였다고 한다.

얼마 전 진주에서 열린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김시민 장군이 진주대첩을 거둘 때 동원했던 군사전술이 시원이라고 하나, 이 역시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연등회와 무관하지 않다. 요즘은 서울 한복판인 정계천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등불축제 역시 부처님의 지혜를 등불로 밝힌 연등회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보면, 최근에 많은 지자체에서 등불축제를 여는 것이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 내면

에는 불가에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등공양의 전통이 숨어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사찰에서 사월초파일날 연등을 달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밤에는 거리행진을 하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이 땅 모든 곳에 두루 비치기를 기원하는 연등회를 여는 것은 이제 국가의 큰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사월초파일 지나고 난 이후에도 달았던 연등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어 먼지가 뿌옇게 내려앉고 찢어져 너털거리는 것을 보면 당혹스러울 정도이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 달았던 연등을 하나의 장식물처럼 사찰에서 재활용하는 것 역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연등을 잘못 관리하거나 아무런 생각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등공양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된다.

사찰에 다는 연등은 등공양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공양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부처님오신날 달았던 연등을 철거하지 않거나 장식물처럼 재활용하는 것은 연등을 잘못 관리하는 예들이다. 사진은 대구광역시 사찰, 연등을 나무에 장식물처럼 재활용하고 있다.

약사여래부처님이 상주하시는 현지사 고성분원 약사성전!!!

중생의 고통중에 병고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중한 병고는 대부분 전생의 업장이 발현한 것으로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불치병 난치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치유합니다. 의중대왕이신 약사여래 부처님께서 업장소멸과 병고치유로 병마에 신음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열어드립니다.

약사여래부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의 치유사례 - 서울시 천호동 유길순 불자)

빠속까지 전이된 유방암 말기, 고통으로 앉지도 눕지도 서지도 못하던 제가 약사여래부처님 가피로 지금은 앉고 눕고 서고 뛰어다니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 온몸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배를 바닥에 깔고 세수도 하고 밥도 먹고 했습니다. 이런 고통을 이겨내면서 한달 반쯤 지났을 때 약사여래부처님께서 알게 모르게 온 몸을 차레차레 치유해주시는 가피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 (현지사 홈페이지 '신행담' 중에서)

약사재일 - 매월 음력 8일 (9시 30분) 봉행합니다.
약사여래부처님 공양·기도 접수받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대진항길 7 전화 033)681-5515
영산불교 현지사 고성분원 약사성전 팩스 033)681-5538
※ 약사재일에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심을 선언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영산불교 현지사 광명 만덕·자재 만현)

동해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현지사 고성분원